

전북경찰, 보복·난폭운전 '하루 1건'

78명 적발·37명 입건 실제 사고로도 이어져

전북지역에서도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보복·난폭운전이 하루 한 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달 12일부터 보복·난폭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보복·난폭운전자 78명을 적발하고 이중 37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는 보복·난폭운전에 특별단속에 나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협박 등)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명을 통고 처

분했다. 경찰은 또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로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5명을 통고 처분했다.

경찰의 단속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보복·난폭운전이 실제 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속출했다. 실제 김제경찰서는 지난 25일 주행 차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를 옆 차로로 밀어붙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김제시 공덕면 한 주유소 앞에서 앞차가던 B(49)씨의 차를 밀어붙여 앞차로 밀어붙여 뒤따라던 2t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나 B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군인인 C(21)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전주시 반월동 동산광장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를 변경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차로를 변경하며 급제동, 후진 등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스캐달원 D씨(33)는 지난 달 18일 오후 3시에 군산시 사정동 사정 삼거리에서 진로변경을 하려다 소나타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km를 뒤따라가 피해 차량의 본넷에 올라타 욕설을 퍼붓고 합박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토바이에 보복운전을 당한 여성 피해자가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20대 여성 운전자는 지난 달 오후 10시 6분께 익산시 신동 현대오일뱅크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당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운전자는 지난 달 21일 오후 5시 30분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휴게소 앞에서 다른 차량의 앞차로서 지그재그로 진로를 급변경 난폭운전을 한 영상이 찍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도로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확대되는 만큼 서로 양보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주시는 4월 한 달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자를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2016년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생활비 제외)의 발생이자 전액이며, 시는 올해 4월(1학기분 이자)과 10월(2학기분 이자)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4월 1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 장학재단에서 2016년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으

로, 전국 어느 대학에 다니든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주시 홈페이지 접수 창에서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 적격 확인 및 대출정보 조회를 통해 오는 7월 25일 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전주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인별 한국 장학재단 대출금 상환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교육법무과(063-281-53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20일까지 산불예방 총력

전주시가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청명과 한식일이 주말과 이어져 성묘를 겸한 산촌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20일까지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을 주요 산 등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성묘 후 유품 소각행위를 단속하는 등 집중적인 감시활동에 나선다.

또한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과 각종 농산폐기물 태우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산불감시인력 141명을 산림과 인접한 농촌마을에 직접 배치하여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을 발견한 경우, 소방서(119)와 경찰서(112), 전주시 산림부서(시청 063-281-2511, 완산구 063-220-5412, 덕진구 063-270-651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문화수도 전주 경제수도 서울'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전주시-서울시 상생협력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주푸드지원센터, 소비자 조직화사업 착수

송천동서 봄나들이 행사 가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농민과 더불어 먹거리의 사계절의 한 축인 소비자 조직화사업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지원센터는 지난 28일과 27일 양일간 송천동 전주푸드매장 인근에서 12가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오송제 생태탐방에 이어 직매장 재방사에서 우리말과 쌀로 가족 얼굴 꾸미기 만들기 체험과 가족사진을 찍는 등 만족도 높은 체험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평상시 직매장을 찾는 시민들의 사전예약을 받아 추진된 것으로, 지원센터는 모집정원

이외의 신청자가 쇄도함에 따라 예정보다 4회 차를 늘려 오는 4월 2일과 3일에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센터는 계절별로 다양한 유형의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해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의 사회적 간극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 조직화의 성과가 일회성 체험을 넘어 먹거리공부분야 교육분야, 도농교류분야 등 일차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선거경비상황실을 열고 공경선거를 위한 경비체제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지방청과 도내 15개 경찰서 등 총 16개소에 선거경비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선거경비 태세에 들어갔다.

경찰은 1단계로 13일까지 경계강화 비상근무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2단계로 선거 당일인 13일 개표 종료까지 감호비상근무로 출동대기태세에 돌입해 선거경비 비상근무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투·개표소 등 경비대상 장소에 적정한 경력배치와 경찰력을 집중해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전북경찰, 총선 경비체제 돌입

전북경찰청은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선거경비상황실을 열고 공경선거를 위한 경비체제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지방청과 도내 15개 경찰서 등 총 16개소에 선거경비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선거경비 태세에 들어갔다.

경찰은 1단계로 13일까지 경계강화 비상근무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2단계로 선거 당일인 13일 개표 종료까지 감호비상근무로 출동대기태세에 돌입해 선거경비 비상근무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투·개표소 등 경비대상 장소에 적정한 경력배치와 경찰력을 집중해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지인 속여 차 가로챈 6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부(김성용 부장판사)는 31일 지인에게 새 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차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5월 전주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지인 A씨에게 "주유소 사장인데 영영용 차가 필요하다. 차를 주면 한 달 후에 새 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A씨의 에쿠스 승용차 1대(시가 2400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의 승용차를 담보로 설정해 주유소의 부족한 공사대금을 구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공무원 장애 현장체험

휠체어 이용 저상버스 승·하차 탑승

전주시가 장애인들의 입장에 선 행정업무 추진으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각종 행정 업무 추진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장애 현장체험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전주시 도로업무 담당공무원 10명과 양 구청 건설과 직원 10명 등 20명은 이날 중앙성당부터 전주성당 구간 버스승강장에서 휠체어를 이용해 장애인 저상버스 승·하차 탑승 체험에 나섰다.

또한 장애 체험 후에는 현장 즉석 토론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날 현장체험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무

에 반영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공동생활가정 거주장애인인과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농아인 시각장애인 등 전주시 장애인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직접 휠체어에 몸을 싣고 전주시청부터 한옥마을 일대를 돌며 장애체험에 나섰다. 또 장애인 단체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장애인복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날 김 시장은 전주시청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해 한옥마을로 이동해 장애인들의 평소 생활을 체험하고, 장애인의 보행권과 이동권,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직접 수행했다. /김영재 기자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함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드립니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p>〈강의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 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p>〈김양목 전담교수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겸임교수 ·면접지도 권위자 호칭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 대표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저서 : '359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

※부별: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 면접지도,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